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5.6

침묵하지 않은 자들

구소련 식 탄압이 남아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기독교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실라 목사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중앙아시아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후, 중앙아시아에서 사역 중인 순교자의 소리 동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친척들이 우릴 보고 '미친 것들, 이교도, 눈이 멀어 타락한 것들'이라고 조롱하며 비웃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곧 지옥에 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투옥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목회자가 이 동역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습격, 투옥 및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살인 미수 사건까지 겪은 실라 목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 구소련에 속했던 이 지역의 또 다른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은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호의 모든 페이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중앙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 실라 목사와 엘레나는 KGB의 혹독한 탄압에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지켜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방송된 복음

1994년 어느 날,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슬림이었던 실라와 그의 아내는 영화 <예수 JESUS>를 보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후 그들의 삶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실라와 아내 엘레나는 곧바로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실라는 <예수> 영화 복사본 수백 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많은 가정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왔습니다. 실라 목사와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실라 목사의 삶과 개종 후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더 자세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한 지 6년이 되었을 무렵, 실라 목사와 당시 임신 5개월인 엘레나 부부는 아슈가바트 Ashgabat에서 고향 마을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어린 두 자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KGB 검문소를 통과하자마자 반대 방향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실라 목사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차는 계속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가 뒤집어진 채로 멈춰서고 말았다.

실라 목사는 가족들의 상태를 하나 하나 확인했다. 엘레나는 복부에 출혈이 있었고, 아들도 머리에서 심한 출혈을 보이고 있었다. 딸만 가벼운 부상을 입은 듯했다.

실라 목사와 가족들이 뒤집힌 차에서 기어나온 직후, 경찰과 KGB 요원들이 도착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실라 목사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아내와 아들이 피를 흘리며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던 그때, KGB 요원들이 실라 목사를 끌고 갔다. “가족들을 돕게 해주세요!” 실라 목사는 그들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가족들과 있게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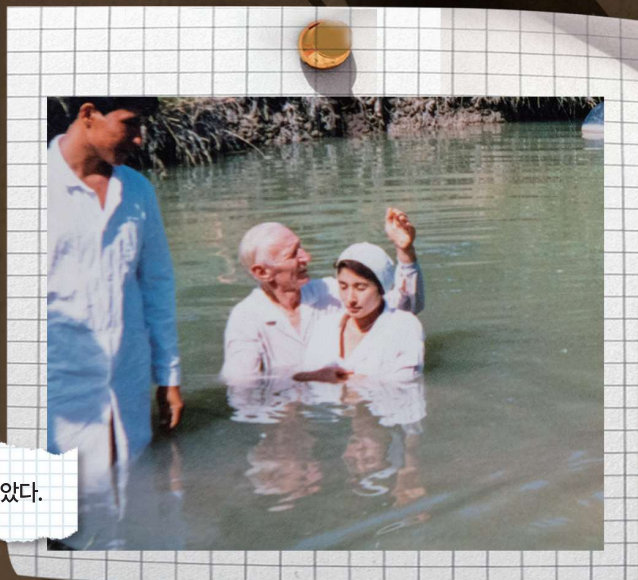
하지만 그들은 실라 목사를 차에 밀어 넣고는 속력을 내어 질주했고, 가족들은 부상을 당한 채 무더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고 말았다. 요원들은 한 시간 가량 차를 몰고 도착해 한 건물로 실라 목사를 데려갔고, 3시간 동안 그를 구타하며 심문했다.

결국 요원들은 실라 목사를 사고 현장에 다시 데려다 주었고, 실라 목사는 엘레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들은 차를 얻어 타고 아슈가바트로 향했다. “아내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뱃속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난 아내까지 잃을 뻔했어요”라고 실라 목사는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기를 사산할 경우 시신을 산모에게 인계해 적절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관습이 있는데, 병원 측은 그 존



▲ 실라 목사와 엘레나는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한 직후 세례를 받았다.



엄한 권리마저 엘레나와 실라에게 주기를 거부한 채 수술을 끝내버렸다. 실라 목사는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엘레나에게 아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엘레나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 후, KGB 요원들은 실라 목사를 다시 체포했고 어느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았다. 구타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실라가 말했다.

고문은 계속 이어졌다. 요원들은 실라 목사의 손가락과 귀에 전선을 연결하고 고압 전류로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의 손톱 밑에 바늘을 꽂고 큰 집게로 손가락 끝을 꼬집었다. 한번은 실라 목사에게 가스관이 연결된 마스크를 씌우고 공기를 차단해 질식사시키기도 했다.

실라 목사는 “그런 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고문 도구를 동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못하게 했고, 자신들이 개발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아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구타를 하면서 요원들은 실라 목사와 가족들을 국경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했다. 한 요원이 말했다. “거기서 당신들을 쉽게 죽일 수 있거든.” 또 다른 요원은 실라 목사가 <예수> 영화 테이프에 복음을 읽어 녹음한 것을 지적하며 그의 목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린 적이 몇 번이었는지 몰라요.” 실라가 말했다.

고문으로 지치고 더 큰 고통이 두려워진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당신께로 데려가주세요.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둠 가운데 빛

실라 목사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KGB 요원들은 엘레나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집을 감시하며 드나들었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엘레나를 언어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혔다. 실라 목사는 “그들은 신체

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법으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현명하게 말로 그들을 제지할 수 있었어요”라고 했다. 결국 한 요원이 다른 요원들에게 그만 괴롭히라고 명령했다.

몇 주간의 구타 끝에 실라 목사는 석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감되어있던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석방되었다.

하지만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정말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KGB 요원들이 다시 찾아와 가족들에게 소지품을 챙겨 집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집을 챙길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어요. 요원들이 돌아와 집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실라 목사가 말했다.

갈 곳이 없어진 실라 목사와 엘레나는 마을에 돌아가기 전까지 도시에 잠시 동안 숨어있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내 KGB가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달라 요구하면서 실라의 부모님을 심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KGB는 엘레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아버지의 자동차를 압수했고, 오빠를 심문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가정교회 지도자로 사역하던 이웃을 체포했다. KGB는 며칠 동안 그를 고문하면서 실라 목사의 행방을 말하라고 강요했다.

“그가 내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목사님을 쫓고 있어요. 살고 싶거든 여기로 오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요.” 실라 목사와 엘레나 부부는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도망길에서

2001년 1월 10일, 실라 목사와 가족들은 투르크멘인들이 자유롭게 이웃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3일 통행증을 이용해 국경을 넘었지만, 돌아올 생각은 없었다. “난 여전히 그들이 나를 체포하고 가족들을 해칠까 봐 걱정이 됐어요”라고 실라 목사는 말했다.

“나는 부르짖었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때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꼈다. “다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니, 내가 여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일 이후 곧 러시아 목회자 몇 명이 이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두 달 후, 한 친구가 실라 가족이 러시아로 밀입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6면에서 계속)

2025년 6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기독교인들이 행 13:47 말씀대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이라크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3 인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4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5 부르키나파소 고향에서 쫓겨난 기독교인 난민들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기회를 얻도록	6
8 차드 시9:9 말씀에 따라 차드에 온 수단 난민을 돌보는 성도들에 감사	9 튀니지 당국의 반대에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튀니지 성도들에 감사	10 모리타니 큰 위험을 무릅쓰고 모리타니에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사역자들을 위해	11 몰디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몰디브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12 차드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슬림 가족과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13
15 오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뒤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16 토고 외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토고 선교사들을 위해	17 이란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감방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18 요르단 복음 전도와 새신자 양육을 위해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도록	19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들과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20
22 투르크메니스탄 수시로 가택 수색을 당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23 이라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슬림 개종자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	24 러시아 및 점령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갈망하도록	25 아랍에미리트 기독교 개종자들이 핍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26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인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27
29 순교자의 날 가족, 친구, 교회와 함께 영상을 보며 기도하세요. vomkorea.com/doctm	30 니제르 투아레그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브라힘, 와라르니, 우사덴을 위해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숭인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RIDAY	SATURDAY
6 현충일	7
타지키스탄 사52:7 말씀대로 외딴 시골 지역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잘 진행됨에 감사	공고민주공화국 폭력적인 공격을 경험한 성도들의 정서적, 영적 치유를 위해
13	14
키르기스스탄 구타당해 상처입은 성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민주공화국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고향을 떠났던 수천 명의 성도들을 위해
20	21
스리랑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불교도와 힌두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중국 경찰의 위협에도 복음을 전하는 중국 성도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
27	28
시리아 가족에게 버림받은 개종자들이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며 위로를 받도록	인도 아자이처럼 힌두교로 돌아오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벌금형과 체포, 취업 거부로 핍박받는 중앙아시아 목회자들, 당신이 도울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의 한 목회자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 최근 '불법 종교 활동'으로 간주되면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예배를 규제하는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아시아 목회자들에게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들은 벌금형과 체포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많은 목회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중앙아시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 남아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로 헌신한 다섯 명의 목회자와 그들의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 다섯 가정이 복음에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2만원으로는 목회자 한 가정을 **1주일간** 지원할 수 있고,
48만원으로는 목회자 한 가정을 **1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288만원으로는 목회자 한 가정을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576만원으로는 목회자 한 가정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께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6월 30일까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중앙아시아'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중앙아시아'라고 기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기금 가운데 프로젝트 예산을 초과한 금액은 핍박받는 중앙아시아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scan me!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 현재 실라 목사는 매일 방송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방송에는 성경 공부를 비롯해 핍박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실라 목사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년 전 기독교 라디오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역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실라에게 투르크멘어로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실라가 흔쾌히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St.Petersburg에 자리한 작은 스튜디오에서 제작 회의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15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녹음했고, 해당 프로그램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었다.

더 멀리 뻗어나가다

2001년 11월, 실라 목사의 가족은 노르웨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시점부터 실라 목사는 녹음 스튜디오를 짓고 방송 사역을 확대하여,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핍박을 받는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갔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복음을 선포하고 지하교인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야 했을 때만 해도 지금의 사역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매일 2시간 동안 투르크멘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까지 어디에서나 우리 프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이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매일 소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말로 된 방송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실라 목사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자신과 어떻게 함께해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연약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전의 나는 젊고 열정이 넘쳤지요. 어떤 의미에선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힘이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여러 말씀을 통해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고후 12:9 참조)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인구의 94%는 수니파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4%에 불과하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교회가 공개적으로 모일 수는 있지만, 아직도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된다. 당국은 언제든지 기독교인의 집을 급습해 기독교 서적을 찾아내려하고, 일부 가정은 여전히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부에 알려지면, 괴롭힘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훈련이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순교자의 소리는 현재 수감된 목회자들의 가족을 지원하며, 전국에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있다.



▲ 실라 목사는 사역 초기를 회상하면서, 핍박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인쇄기

- 중앙아시아의 최전방 사역

기독교인 박해 국가에서 진행되는 최전방 사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일 때가 많다. 중앙아시아에서 최전방 사역은 인쇄기와 컴퓨터가 있는, 아무 특징도 없는 조용한 밀실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하 인쇄소이다.

이 장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이뤄지진 않는다. 욕조에서 세례를 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매년 수천 장이 인쇄되고 재단된 후, 책으로 제본되어 중앙아시아 전역에 배포된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각기 다른 250권의 책이 6개의 언어로 인쇄되었다!

그 책들은 단순한 서적들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들이다.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도서들인 것이다.

지하 인쇄 사역은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당국에 발각되면 체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쇄 사역에 참여 중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 바란다.



▲ 순교자의 소리 도서 표지를 코팅 중인 자원 봉사자

중앙아시아에서는 불법이 된 어린이 사역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사역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어린 세대들에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전도 활동으로 인해 벌금을 내고 체포되기도 했다.

한 최전방 사역자는 당국에 활동이 적발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일부 사역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한 압박에 한 발 물러섰지만, 벌금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현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린이 사역이 계속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왔다.



▲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핍박받는 중앙아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순교자의 소리는 매년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훈련과 컨퍼런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종종 매우 위험하지만, 참석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참석할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여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목회자 훈련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가족, 정부, 무슬림 등 다양한 박해자들로부터 핍박을 경험했었다.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함께 시청하던 중, 한 목회자가 다가와 영화 속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했다. 복음 때문에 수년간 감옥에 있었던 그는 리처드 웜브란트 Richard Wurmbrand 목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고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 목회자들에게 핍박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었다! 번영 신학에 물든 복음이 중앙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훈련은 미래의 박해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핍박 또한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관람 중인 중앙아시아 목회자들

2025 하반기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 3기생을 모집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이 6가지 신앙고백을 말씀을 통해 깊이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 이상의 온전한 의미로 이해하고 그분의 재림을 향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 6개월 과정: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월 1회 (6/14, 7/12, 8/23, 9/13, 10/18, 11/15)
- 훈련비: 400,000원 (6개월 과정, 식사 제공)
- 강사: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현수 폴리 대표
- 장소: 순교자의 소리 서울 사무실 (구체적인 사무실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010-3151-2065 / 02-2065-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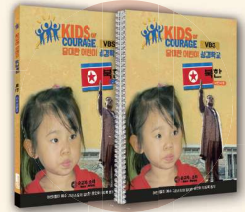
※ 지하신학교는 목회자와 성도, 모든 기독교인이 신구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훈련합니다. (별도의 학위는 없습니다.)

일정 및 강의 내용



6/14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7/12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8/23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9/13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0/18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11/15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신 / 간 / 소 / 개



「담대한 어린이 성경학교

- 북한/중국/나이지리아/인도/이집트 편

5개 국가(북한, 중국,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의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가 고난 중에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양육 교재

교사용 12,000원 / 어린이용 7,000원

아래 영상과 QR코드를 통해 중양아시아 핍박받는 형제자매에 대해 알아보고 히13:3 말씀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먼저 사용하세요!

대전 사무실: 북한사역 간사_단체 내 탈북민 선교 학교의 행정 및 관리, 수업/행사 준비 및 진행
시설담당 매니저_단체의 각 사무실 및 차량 점검 및 관리/유지
부산 사무실: 번역가_단체 내 모든 보고서 및 보도자료, 소식지 및 도서번역
멀티미디어간사_그래픽디자인, 오디오 및 영상 촬영 및 편집, SNS 및 웹사이트 편집 등
자원봉사담당 간사_소식지 구독자 전화 안내, 방문 봉사자 안내 및 관리, 도서 인쇄 등
사무행정간사_사무실 관리 및 행정 업무, 소식지 구독자 전화 안내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 2
각 10,000원



「최초의한국여성서와 한국개신교의기원론」
15,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여행자 - 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조선어 스테디 성경』
일반 25,000원
큰글자 30,000원



『조선어 스테디 성경』
(창세기/산악)
10,000원



21세기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리처드 웹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쿠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여행자 - 복음 위해 사선을 넘은 자들」
10,000원



「역경의 길 위에서」
10,000원



「이란 - 희망과의 조우」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